

“사찰규약 제정해야 등기신청 가능”

올해 첫 교구본사주지회의 개최

종단-지역교구 주요현안 ‘공유’

조계종의 모든 사찰은 앞으로 부동산 등 사찰 재산의 유실방지를 위해 ‘사찰규약’을 제정해 교구 본사를 거쳐 총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사찰규약 전면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찰규약은 지난해 3월 종단에서 발급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의 등기예규’의 시행에 따라 종단이 제정한 것이다. 각 사찰에서는 공증한 사찰규약 원본을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교구본사는 이를 총무원에 제출하면 된다. 사찰규약을 보고한 사찰에 한해 등기신청 증명발급이 가능하고, 관련 인감증명원 등 관련 서류는 총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총무원 관계자는 “공증 받을 때 인감을 개인 인감을 사용할 경우 주지가 바뀌면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찰직인으로 날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더불어 공증 받은 사찰규약 내 사찰명과 소재지, 사찰직인 등 기재내용이 총무원 공보(公簿)와 다를 경우 다시 공증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총무원

공부 기재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무부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사찰종무원 교육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사찰종무원 교육은 직영사찰, 교구본사 및 말사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기본과정은 5개 권역(서울·경기·강원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으로 나눠 연 2회(총 10회) 2박3일 과정으로 개설하고, 교구본사 종무원은 연 1회의무 이수해야 한다. 전문과정은 국교·정산·사찰회계 실무과정을 연 2회 개설해 전체 사찰 종무원 가운데 종무원이 선택해 수강하도록 했다.

이날 결사추진본부가 오는 3월3일부터 100일 동안 전국 14개 광역시 내 주요도시 100여 곳을 순례하는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등 본사 주지 스님들과 중앙총무기관 주요사업과 현안을 공유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3월 결산 총회를 앞두고 종단에 여러 가지 현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심도 있게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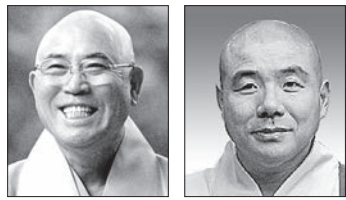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사찰규약 전면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등 종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나눔문화 확산 ‘아름다운 동행’ 잇따라

서울 관음사·조계사 아프리카 학교건립에 2000만원·1000만원

국제선센터 쌀 2톤...



종하스님 원로의원 도문스님 조계사 주지

관음사, 국제선센터, 조계사 등 서울지역 주요 사찰에서 잇달아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 자비나눔 기금 전달에 동참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스님(서울 관음사)은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아프리카 학교 건립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종하스님의 나

눔 동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님은 아름다운동행이 출범한 지난 2009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종하스님은 가장 먼저 자비나눔기금 1000만 원 동행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아이티와 일본 구호기금으로 각각 1000만 원을 보냈다. 또 지난해 2월에도 기부 문화와 자비나눔 사업 확산을 위해 1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나눔 실천에 앞장서왔다. 이날 전달식에서 종하스님은 “종단에

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이라는 원력을 세웠는데 많이들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스님)도 같은 날 쌀 10kg 200포, 총 2000kg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국제선센터가 전달한 쌀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지정 기탁돼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기금으로 사용된다.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스님)는 이에 앞서 11일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 기금은 조계사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아름다운동행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설법자료 ‘M-라이브러리’ 유아용 ‘응답하라 아바로’

포교원, 자체개발 포교용 앱 설명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스님·사진)이 설법자료를 모은 ‘M-라이브러리’와 유아용 ‘응답하라 아바로’ 등 2013년 출시한 포교용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했다. 포교원은 지난 12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설명하고 시연회를 개최했다.

포교원 M-라이브러리는 포교원의 소식과 행사 주요 실행단체 법회일정을 비롯해 스님들이 법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경전자료를 모았다.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바일 도서관이다. 밑줄 긋기나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에 연결해 활용할 수 있다.

‘응답하라 아바로’는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이다. ‘아바로’란 관세음보살의 범어인 아바라키테 슈바라의 준말로, 동자승이 제한 시간 안에 관세음보살의 42수(手)를 최대한 많이 획득하는 형식이다.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불교에 좀 더 친



숙하게 다가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M-라이브러리와 ‘응답하라 아바로’는 안드로이드용으로만 개발됐으며, 차후 아이폰용 프로그램

을 따로 개발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2012년에도 어린이가 마음거울 108, 청소년 마음거울 108, 성불도놀이, 육바라밀 등의 앱을 출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표준한글독송집 CD, 가족법회 활성화 운영 매뉴얼, 단행본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2013년 문공부 우수교양도서) 등 포교원이 2013년 개발한 포교콘텐츠들이 소개됐다.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간담회에서 “전년도까지의 성과를 이어받아 지역전법 토대 구축을 위한 포교프로그램 및 신도종책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전통사찰 증축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

각종 규제로 발목이 묶였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증축불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8일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과 공장의 증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로 하며, 1만 제곱미터(3000여 평)를 초과하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때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치

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증축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한 규모까지만 증축이 가능했다. 특히 전통사찰 건축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처마가 대지조성 허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불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지조성 가능 면적과 제한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 “전통사찰의 전통적인 가람배치의 특수성과 건축양식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전체적인 규모의 가람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불교지도자 불교포럼

김동건 대표 재추대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사진)가 불자지도자 네트워크 불교포럼 상임대표에 재추대됐다. 또한 사회 각 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13명의 공동대표를 선임하는 등 제2기 임원진을 꾸리고 올 한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불교포럼은 지난 14일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 1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동건 현대표를 만장일치로 차기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이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13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앞으로 2년 동안 불교포럼을 이끌 김동건 상임대표는 “화쟁 정신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 구성된 임원진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좋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힘을 합치는 것만이 오늘날 한국불교가 되사는 길인만큼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잡고 우리를 삶의 대낮을 더욱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불광 아카데미 연회원 및 수강생 모집

불광아카데미 연회원으로 등록하시면 1년간(2014년 3월 ~ 2015년 2월) 교육원에서 열리는 모든 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개설강좌 : 청정도론, 금강경, 아함경,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승만경, 유마경, 대승기신론, 중론, 유식사상 등
- 연회원등록기간 : 2014년 2월~3월
- 동 참 금 : 연회비 60만원(교재비 별도, 선입금 30만원)
- 아카데미 강좌는 개별 접수도 가능합니다

강의명	강사	개강일	시간	동참금
금강경(10주)	범준스님	3/3(월)	아침반 10시-12시 저녁반 7:30-9:30	10만원
육조단경(8주)	서재영/승원스님	3/4(화)	아침반 10시-12시 저녁반 7:30-9:30	8만원
위빠사나 수행(10주)	정준영	3/12(수)	오후반 2시-4시 저녁반 7:30-9:30	10만원
간화선 입문(10주)	한중광	3/13(목)	아침반 10시-12시	10만원
청정도론(10주)	각목스님	4/9(수) 저녁반 4/10(목)아침반	아침반 10시-12시 저녁반 7:30-9:30	10만원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8주)	석길암	4/29(화)	아침반 10시-12시 저녁반 7:30-9:30	8만원

- 오시는 길(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42)
 - 버스 : 석촌호수역 하차
 - 지하철 : 2호선 잠실역 3번출구, 송파방향(10분거리) 7호선 석촌역 7번출구(5분거리)

불광 아카데미

불광 아카데미에서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다양한 경전강좌와 수행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긴 경전을 찬찬히 배우며 불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02-417-2551 www.bulkwangsa.org